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

고흐는 내 남편보다 딱 백 살이 많은 남자다.



<국립미술관과 반 고흐 미술관 사이 작은 광장>

1973년 본관을 개관하고 1999년, 일본 건축가 구로카와 기쇼가 설계한 신관을 세웠다.



<반 고흐 미술관 전경>

전에 예술문화회관에서, 「고흐, 레프리카 전」 할 때 나는 도슨트로 오랫동안 활동한 바 있다. 많은 관람객들에게 그의 생애와 작품을 설명하다가 울컥한 적이 여러 번, 그림만이 그의 유일한 구원이었던, 열정의 사나이에게 나도 모르게 연민을 느꼈던가? 짧은 생애 동안 그린 수많은 그림과 드로잉, 그리고 동생과 주고받았던 편지가 쌓여있다. 많은 연인들과 영원한 사랑을 열망했지만 시시하게 짝사랑으로 끝나버린 무기력한 청년 고흐! 그는 죽을 때까지 사랑에 목말라 했다.



<아를의 붉은 포도밭. 고흐. 18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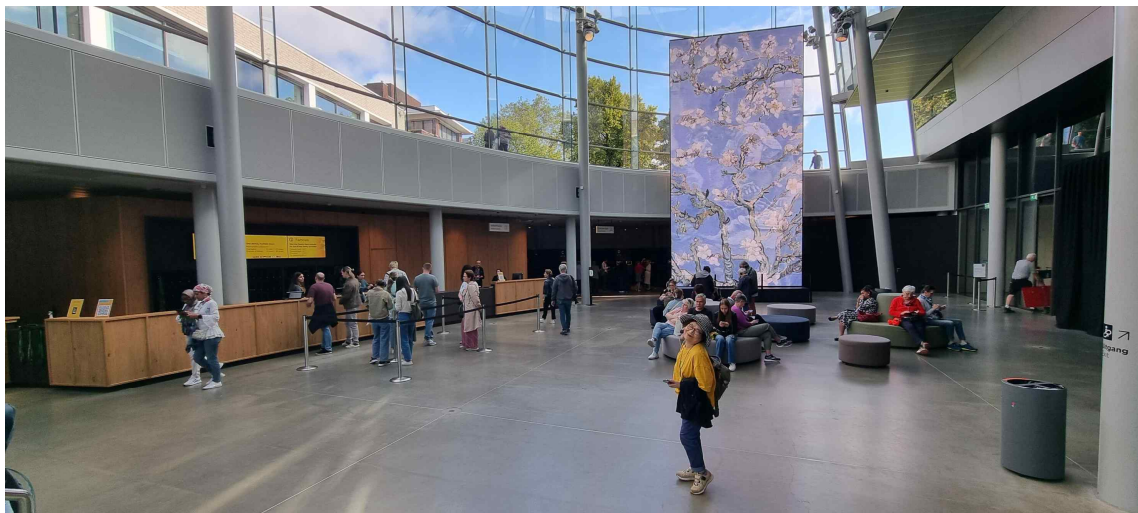
살아생전 딱 한점만(아를의 붉은 포도밭) 그의 그림이 팔렸다. 그러니 그의 생활이 어땠는지 가늠할 수도... 동생 테오의 도움없이는 그림공부가 불가능한 그,

동생이 결혼과 동시에 아들을 낳자 그의 예술혼이 불안정해진다. 그래서 밀밭으로 숨어 들어가 스스로 방아쇠를 당겼나? 그의 사후 동생, 테오의 부인 즉 제수씨와 조카의 도움으로 그의 그림이 잘 보존되었으며 나중엔 미술관에 기증하게 된다. 그들의 지혜가 없었더라면 오늘날 우리가 고흐를 만날 수 있으려나!



<반 고흐 미술관 입구>

그의 미술관은 이미 관람객들로 넘쳤다. 왼쪽엔 네덜란드어, 오른쪽엔 영어로 고흐가 동생 테오에게, 1885년 4월13일 보낸 편지 중 일부를 표제어로 써 붙였다. ‘예술에는 마음과 영혼을 담아야 한다.’



<반 고흐 미술관 로비>

층층을 올라가며 구경하는데 역시 운동 부족, 저질 체력인 나의 한계가 금방 느껴진다. 나는 하는 수 없이 구석 의자에서 쉬기로 하고 친구 Y 혼자 구경하라

고 했다.



<반 고흐 미술관 굿즈샵>

미술관 1층 굿즈샵에서 그림책을 구입하는데 - 여러 언어의 책은 있는데 한국어 버전이 없어 몹시 섭섭했다. 이 상황을 묵인하고 그냥 스쳐 지나간다면 안 될 것 같아 나는 기어이(?)... 이처럼 한국 관광객들도 많이 오는데 왜 한글 버전이 없냐고? 그러자 매니저 격인 남자가 머리를 긁적이며 약간 미안해했다. 나라만 벗어나면 이처럼 누구나 애국자가 되는 듯, 하여튼 대한민국 아줌마의 저력이라니!

간식을 얼마나 많이 싸 왔는지 며칠 동안 레스토랑에 갈 일이 없을 것 같다. 컵라면은 기본이고 누룽지를 끓여 먹는다든가 햇반을 뜨거운 물에 데웠다가 고추장에 비벼 과일과 견과류, 커피 - 이상한 조합이지만 - 우린 히히덕거리며 맛있게 먹었다. 그런 다음 생수와 간식을 챙겨 다음 목적지인 잔세스칸스로 가고~~, 기차를 타고 풍차마을로 유명한 그곳으로 우리는 향했다.